리아호나

일반
2 대관령단 예시: 우리 생활에서 꼬리표들을 물리침 고든 비 항공기 대관령
7 구약에 관한 말씀하신 말씀의 예언자들의
10 구약전사를 공부하고 가르침 헨리 비 아이언장로
18 “이때를 위하여” 본부 성호부조회 회장단
24 별명 교육 예시: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함
36 해럴드 빌리: 위대한 교사 브레인 클럽
48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활용하기

청소년관
25 절의 응답: 학교에서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8 말 이상의 것 피터 비 가드너
30 밤일성의 소리: “너는 승리할 것이다” 피라니가 없는 것 없어 묻는 새치
내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퀘어 페이턴스 레일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셨다 정의 오마니파 티양
“내가 막힌 그 때에 감함이라” 캐리 프루먼시 오브라
이미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세요 아밀손 호세 오르타
46 꿈에 그리던 이상형 리아 베끼터

친구들란
2 예언자의 사도께서 주신 말씀: 성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4 함께 나눈 시간: 영원히 함께 비키 아프 마푸모리
6 친구가 친구에게: 열 염 본손 장로
8 침조를 발표: 예수 그리스도의 침조를
리슬리 하트속
10 새친구 사귀기 엔지 빌리스트론
12 신약 성서 이야기: 귀신이 물린 아이 신인을 고치신 예수님
16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 정직하기 루디니아 안드로야 페르난데스 필로

친구들, 2쪽 참조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제2호

리아호나는 일요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집필...

라시아에서의 교회 성장

저는 라시아 사라토브에 살고 있으며 교회 회원이 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첫째례 신교가 도착한 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1993년에 제가 러시아와 함께 임명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러시아로' 된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도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던 러시아 교회, 그리고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신앙군이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오늘날 북유럽의 풍성한 척추를 비 pudo. 이제 이곳에는 하나의 복음사가 생겼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매주 참석하는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라이안나라시아의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세계 각지의 성도들에게 이 곳과 대주교님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사들은 목상나의 성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저희는 많은 전에 라이아노는 친절한 사람들 가족이 됩니다.

마르가 왕자코바,
라시아 사라토브 지방
사라토브산 고든남자부

초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소중한 잡지

우리는 라이아나에 많은 학교에 대해 전설이란 감사를 드리고자 이번에 이 학교에 실어두었습니다. 최근에 잡지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것을 봅니다. 의심해 여지 없이 이 잡지는 의관된 아니라 내용에 있어

도나 타임호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표현하기 힘든 일들을 여러 가지들여서 간접하고 참담하게 표현한 점이 특별히 감명길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및 교사들,
개택수목사 사무작 사례와 스테이크
로스 라우스파워 웨드

연차 대회 특집호에서 덕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라이아나 우유가 발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연회는 바로 제가 필요로 하는 명연의 영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그림을 통해 저는 종교가 인하 하는 개인적인 계실을 얻습니다.

저는 1월호와 7월호 연차 대회 특집호로 주목을 합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찾고 있는 이론을 알고 개선해내시시의 적절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새롭게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전세계의 손질 사전을 사랑합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인해 지금은 성경에 가치 못하지만 안전스는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이아호나에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매달 새로운 주의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웹 성명

라이어 타이어 스테이크
라이어 제66호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고등 비 형글리 대관장

수년 전에 저는 교회 창시년들에게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쳐는 일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같은 주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적극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싸워야 할 골리앗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골리앗들에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 위대한 선조에서 배울 수 있는 한 품목한 본보기를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세대들의 다윗과 이야기입니다.

곧 아서다시피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의 영도 하에 블레셋 군대와 싸울 것이라는 전장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한 연락을 잃었고, 블레셋 군대가 몇 번 연락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가르 출신의 골리앗이란 왕대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여섯 키 92센티만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장 3미터 정도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농구 센터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감독으로 무장한 계곡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때려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총을 꺼내자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기대해 하였고, 우리는 이 기이한 골리앗과 우리 민족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사무엘상 17:8-10)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거인을 보고 싶어져서 그의 고향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 중에 그에게 결탁한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말았습니다.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세대는 아들 아들들에게 군대에 있는 세 형들에게 힘을 줄 것을 갖다 주게 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골리앗이 다윗아시야와 함께 등장하면서 고향자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움에 말았습니다.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배워 말하였으나.) "왕이시여, 왜 그토록 이 거인을 두려워하시시냐? 제가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니 나의 소년이요. 그는 어서라부터 용사인이라."(사무엘상 17:33)

신앙으로 무장한 다윗

그리고 다윗은 나가 싸우기 위해 다이나고 사울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양 배를 구하라고 사자가 골프 쌓았던 일을 말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많은 병사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으니 한 사람을 더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그리자 다윗도 자인에게 말려가며, "손을 주어 넣어 돌을 가지고 돌멩이 던져 불러넷 사람의 아마를 치매 돌이 그의 아마에 박히니 평에 엎드러지니라"
말했습니다. "가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 것"(사무엘상 17:37)

그런 다음 사람은 다윗에게 전투도 힘들 정도로 갑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요"라고 말하고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럼 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개를 골라서 자기 독자 제속 곧 수마니에 넣고 손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아"(사무엘상 17:40)했습니다.

이 뜻대로 소년은 오직 갑옷을 들고 다섯 개를 가지고 신앙의 갑옷 외에도 다른 어떠한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제복으로 나려갔습니다.

Delimiter

카락 쟁이 바람으로 무진한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엄신이거나 이는 그가 젊고 높고 용모가 아름다운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와 큰가"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어사라 빼앗기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세갈들과 돌 징승에게 주리라"

그 말을 받아 다윗은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했습니다. "너는 갑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아오자나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시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망의 돌 징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시 줄 알게 하겠고"(사무엘상 17:42~46)

3미터나 되는 거인을 마주하고도 소년은 참으로 다크히 말했습니다.

화가 난 골리앗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거인에게 달라가며 "손을 수마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 밖으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름을 차례 돌 그의 이름에 밝히라 항에 얹드리라"(사무엘상 17:49)했습니다.

우리 살 속의 악한 거인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악한 의도로 가진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키가 3미터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약화시키며 파멸시킬 수 있는, 허약하며 악한 것들을 조금만 사람과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은 깁스, 슬, 단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여론을 노래로 부리고 싶어하지만, 비교적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아 여러 종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을 디그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수십억 달러의 사업이이며, 이는 거대하고 악한 거미집과도 같습니다.

유혹하고 욕망하고 슬짓한 외았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잡지, 영화, 각자 자료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았들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여론이 허락한다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여론의 가장으로 침임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여론의 모을 빼앗고 철저하게 파멸적인 활동으로 여론을 이끌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여론의 비행지에 있는 거인들은 위험적이며 교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행진에서 막대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익혀서 살아남습니다.

그들의 제품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론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놓습니다. 그러나 손에 전자미의 몹을 든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론은 조언과 가르침과 권고의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여론을 정복하려는 이러한 적들을 맞서서 사용할 항해와 명예와 고결성이라는 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론의 도착에 도달해 온다면, 비유적으로 말해, 그 독저 "인기"에 적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도록 자신을 단단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론은 가장 갑옷으로 단단한 반격으로 그들 모두에게 이러한 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갑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아 오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 나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승리는 여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사람도 이러한 세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론을 지키는 자녀는 하나님의 성원이 여론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론은 하나님의 보호를 감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여론을 위협하도록 하락하지 마십시오. 군견처럼 서서 본분을 지킨다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 주변에 몰리앗들이 있지만, 손에 진리의 물매를 들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작들과 앞서 사용할 박행과 영애와 고결성이라는 울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싸워 이긴 여러 전투를 희생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유혹이 닿치으면 그 유혹을 거부하고 성실수를 일삼는 것이 “몰리앗”이라 정하고, 다윗이 가드 출신 블레셋인에게 행한 것이 그 방법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개의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을 지키라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최고급 용단이며 가구, 전기 제품 등으로 충분히 살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놓았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와 값비싼 보석도 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도서관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갔다가 두려워 값비싼 이중 자물쇠 장치를 설치했고, 집을 떠나들 때마다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창문이 문마다 쌍장장살을 대어 놓아, 집 밖을 내다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감옥의 좌수처럼 보였습니다. 불청객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는 값비싼 전자감지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그는 도둑이 숨을 좀 안 되도록 나무나 관목이 전혀 없게 조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복해 하며 “이건 안전해”라고 종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쌍장장이나 이중 자물쇠 장치, 경보음 중 그 어떤 것도, 그 자신의 살과 가족의 살을 파멸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침입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안과 불행의 독방에 갇혀, 스스로에게 포로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활 속의 몰리앗들이 자신을 압도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수없이 다가오는 오래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합니다. 가정을 지키시오, 더 교활한 침입자들이 은밀히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데도, 도둑이나 강도에 대비한 쌍장장과 자물쇠와 전자
장치만 설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량을 피하듯이 외실들의 피하십시오. 몇 해 전에 이곳 인해 교회에서 피문되었던 사람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비행기에서 잃은 외실 잡지를 사서시 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흥미를 캐웠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이 이러한 책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홍분을 돕는 영화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러한 것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다왔습니다. 집을 떠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았고, 더욱 쉽게 자신의 욕심에 타ملك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사무실에 남아 있을 것을 깨닫고, 그와 함께 남아 있을 것을 비서에게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 일은 또 다른 일로 이어졌고 그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앉아 독을 흘리며 처음 외실 잡지를 읽었던 그 날의 일을 추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려고 끝까지 총출하게 남아 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부수리와 고통을 겪은 자녀들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후 이어진 지독한 성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다시 그 축복한 축복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의 방에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얻고 가득한 신선의 꽃으로 그의 신선과 성전 엘다우먼트와 성전 인정의식과 기타 그가 이전에 맡았던 모든 다른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축복하는 동안 이 강건한 남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고, 그의 아내도 그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축복을 마치자, 그들은 서로를 부드럽게 안고 그는 그녀에게 용서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했고 그를 사랑하며 연애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보다 절판 더 행복했습니다. 지역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려움과 범법을 통해 지내야 했던 많은 난대가 가족이 치른 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에 맞서

블랙하게도, 언제나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쓰러리며 살아온 뒷편 이قن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축복받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희망이 끝 şi니가 됩니다. 오직 비참함에 의료와 후회만이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 생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요히 헤매입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정을 얻게 되며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몰아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그분의 가까이 하여 그분의 보호하는 손길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 여러분의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치게 되도록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전쟁터에서 마음으로 골리앗을 대적인 때, 저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외국의 나아가며 오도나 나는 인생의 외교와 이름을 뿌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가라고 하시” (사무엘 17:45)

2. 우리 주변에는 골리앗들이 존재하며, 이 자녀들은 사탄의 의도를 갖고 우리 개인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길 바랍니다.

3.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를 지키 줄 그분의 협력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세력에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4.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가까이 다가가지로써 임직적인 골리앗들을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경계하지 않았었난” (교리와 성약 20:22)
구약전서에 관해
말씀하신
말일의 예언자들

요셉 스미스(1805~1844)
초대 대관장

"우리의 복음이 항상 동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의식도 있고, 그것을 접한하는 역량도 갖으며, 약속의 표적과 결실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일러 침례를 받고 안수례에 의하여 신권에 성립되었음을 분명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48쪽 참조)

브리갑 잉(1801~1877)
제2대 대관장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닦혀 진짜해야 하는 참된 교리를 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대로 생활하고 가르침대로 행할 경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보이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으면, 친사들의 방문을 받고, 고통과 시련, 계시를 받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조상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조들 본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향유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갑 잉, 120쪽 참조)

조지 엘버트 스미스(1870~1951)
제8대 대관장

"우린께서 우리의 최초의 부모를 지상에 놓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권고를 주기 위해 종교 인연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해이 왕국에 다가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고입니다. 영광스러운 왕국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흥분한 일일까요" (대회 보고, 1937년 10월, 49쪽)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제10대 대관장

“거룩한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어떤 서적과 같은 영향보다도 더 큰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쳤습니다. ... 성경이 위대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이 영감을 받았고, 세상에 시작된 이래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책은 적들의 불 같은 바난을 초
레겠습니다. 이것이 영감 받은 기록이 아니었다면 반대 세력들은 이 책에 대해 주의를 끌 기회를 잃습니다. 이런 반대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에 파괴하기로 태초부터 분노로 매번 한 양의 화심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Seek Ye Earnestly, compiled by Joseph Fielding Smith Jr., 1972, 363쪽)

스펜서 더블리 킴블(1895~1985)
제12대 대관장
"매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간단한 설 명과 그림이 있는 성경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책은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져, [실내 소녀가 되어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결실을 하기 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연차는 성경을 읽는 가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녀는 최종에게, 성경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수많은 최종 가운데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 저는 매우 충격 받았고 그 위대한 책을 읽어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에 가자마자 창베기의 첫 구절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메일 충실하게 읽어갑니다."

"그로부터 일 년 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음을 계단을 때 찾아온 만족감이란.
제 영혼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길 권하지리라." ("What I Read as a Boy", Children’s Friend, 1943년 11월, 508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제13대 대관장
"저는 성경 즉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것은 위대한 전리의 근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세주의 삶과 성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지구 역사의 시작 첫날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의 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세대의 삶을 촉박했습니다." (The Gift of Modern Revelation, 엔서인, 1986년 11월호, 78쪽)

하워드 더블리 헨터(1907~1995)
제14대 대관장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 주님께서 손중과 의로운 삶을 되게하기 위해 주신 많은 조건부 약속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의 예로 기울지 않습니. 이런 성약들은 구약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예언자들과 백성들의 결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 우리가 여호수아나 아브라함, 리브가, 라вел과 같이 반응하기로 한다면 우리반응은 그저 나아주면서 우리에게 배신한 일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Commitment to God, 엔서인, 1982년 11월호, 57~58쪽)

고든 비 헨델리 (1910~)
제15대 대관장
"모든 표준 경전은 하나님의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므음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구약전서는 여호와께서 고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주고, 신약전서는 아름다운 언어로 인류의 구세주의 비밀 데 없을 만큼 훌륭한 삶과 영생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The Order and Will of God, Tumbuli, 1989년 8월호, 2쪽)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침

우리 모두는 영원한 행복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우리에게 교사 역할을 해 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심야도 정회회

모든 개개인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낭만

생과 영원한 삶 동안 우리가 갖기를 원

하는 것 역시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별로 알
지 못하거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을 모르습니다. 비참함이나 비참함을 초래하는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비참함의 맛을 모두 보았습니다. 우
리의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며, 행복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우리가 비참함으로부터 멀어 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행복의 계획이 좋은 것을 확신하기 위해 더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따르기 위해 필요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
두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이러한 필요 사
항이 충족된다고 느낄 때, 그 경험들을 다시 헤 vard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걱정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일들
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전서가 과연 행복의 길을 찾아도 도와줄 수 있
는 책임을 지는 의무를 갖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
재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는 동떨어진
듯 보이는 땅을 잃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까요?
한 위대한 교사가 제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나파이어서 25~35장을 읽어 보십시오

대관왕상 제1보좌였던 메리온 지 론니(1897~1988) 부대관
장님은 23년 전에 이 주제에 대해 "구약전서의 메시지"라는 제
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글을 수차례 읽였으며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전에 관하여 나파이어서 25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하며 적절한 설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전서
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장의 내용
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나
파이는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철저히 명확히
가리셨습니다. 또한 그는 이 가르침들이 필요를 살아가는 우리
들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구약전서에 관한 심포
지엄에서) 종교 교육가들에게 한 말씀, 브리검 영 대학교, 1979
년 8월 16일

그리고 나서 론니 부대관장님은 나파이어서 25장의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이 자신과 형제들에
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느님을 감사의 하도록 권고하였음을요, 우
리가 여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
게 됐을 뿐이다.
Isaías 44:10

10 Yo, yo Jehová, y fuera de mi no hay quien salve.

12 Yo anuncué, y salvé, e hice oír, y no hubo entre vosotros dios alguno. Yo soy Dios, y no mis testigos, dice Jehová, que yo soy Dios, ni no antes de mi no fue formado Dios, ni lo será después de mi.

13 Aún antes que hubieras nacido, yo eras; y no hay quien le tocase.

14 Así dice Jehová, Redentor vuestro, el Santo de Israel: Por vosotros envié a Babilonia, e hice desceder como fugitivos a todos ellos, aun a los caldeos en las naves de gloria.

15 Yo Jehová, Santo vuestro, César, vuestro Rey.

16 Así dice Jehová, el que hace lo imposible y los acontecimientos de lo doloroso, como el mar, y sienta en las aguas la fuerza: caen juntamente y fénecen, como pábilo que se quema.

18 No os acordéis de las traigas a memoria las cosas antiguas.

19 He aquí que yo hago salir a la luz, yo que hice ver el camino en el desierto, la ciudad se edificará, y se rematarán los edificios.

20 Las fieras del campo y los pájaros del cielo, y los pollos y las cebras, darán aguas en el desierto, para que beba mi pueblo, y mi heredad.

21 Éste pueblo ha creado bancas públicas.

22 Y no me invocaste a mi nombre, me cansaste, oh, de mí te cansaste, oh.

23 No me trajiste a mi holocaustos, ni a mí mis sacrificios; no te hice servir a mis sacrificios, sino puse tus sacrificios, sino pusiste tus sacrificios, sin pedirme, ni te molestaste con mis sacrificios.

25 Yo, yo soy el que hacía amar de mí mismo, tus pecados.

26 Hazme recordar, entremezcladamente; habla tú para justicia; tu padre pecó.

27 Tu primer padre pecó, y yo previré contra el.

28 Por tanto, yo profetizaré sobre santuario, y puse por an odio preso a Israel.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온건히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굳건히 그리스도를 바라 행해야 하리니.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으며 율법이 우리에게 죽은 바 되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하여 산 바 되고, 더욱이 계명으로 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니라.” (니파이이서 25: 23-25)
느끼질 때 그 반복들은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나파이나 나의 이야기와 같은 많은 위대한 예언자들의 그때 날이 있었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변, 나파이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관 그의 설명에는 성공의 설마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예언자들이 기록한 경전의 비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서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쇠퇴와 회복의 주기에서도 회망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장 5절에서 나파이나는 그가 시현으로 본, 이방인들의 네가 강력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 대해 한탄합니다.

"보라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과는 장의 영을 부으셨으나. 보라 이는 너희가 너희 눈을 감으신 선지자들을 거부하였으나. 주께서 너희를 통지자와 선지자들을 너희의 감악함을 인하여 슬기셨느니라." 

그 뒤 29장의 8절에서 구약전서에서 그를 통해 주신 말씀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나파이나는 그 말씀들이 구약전서에 오직 한 줄을 잃고 있었던, 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오직 선지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말씀을 더 받게 됐을 불만스럽다 하겠느냐. 두 민족의 간중에 내가 너희일 담을 주시고 너희에게 증거하며, 내가 그 중 한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기약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한 나라에 전한 폭은 말을 다른 나라에도 전하며, 두 나라가 한데 합칠 때 두 나라의 간증도 하나로 합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

나파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받아들여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신비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롭니다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먼저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경전을 상호해야 하되 그 뜻을 사료하시바라하시아서는 안 됩니다.

 롭니다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경전에 접근하는 방법들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셨습니다. "주님께 명하신 대로 ... 경전을 상고하는 것과, 이미 정해진 경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할 구절을 찾아내고 경전을 살피며 살피는 것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전서의 메시지, 2절) 이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전을 쭉 mainAxisAlignment,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가가다가 결국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 질문을 갖고, 또한 찾은 답에 따라 행동하라는 경심을 갖고 경전을 상고한다면 더 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독감은 경전에 따라서도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이니 새롭게 느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침파의 솔루션을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약을 공부해 보면서 감점과 내가 가장을 동안, 또 이후에 우리가 웅장 시련에 마주하게 될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음까?

저는 나파이나의 노력하면서, 그 권고의 두 부분을 모두 따랐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먼저 주의 깊게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형들, 나파이나가 받은 배움, 그가 한 번 이상 언급한 생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직접 찾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배움의 제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을 배우겠다는 소망으로 경전을 쭉 mainAxisAlignment 바람.

제가 들 때, 나파이나의 가르침에서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저 질문들에 답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예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과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언의 영과 예언의 은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부터 오며, 또 그 간증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나파이나는 먼저,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이후에도 필요한 것은 예언의 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파이나 25장의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이어 드으라, 이사야의 말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양이 너희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이사야의 말씀은 언어의 영이 가득한 자에게만 간접히 다." 

그 후에 다시 그는 26절에서 예언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는 예수님이 대한 간중과 예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언의 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이 긴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기간에 달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아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저들의 의를 어떻게 사할 뿐만 가하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후 계속해서 나타내는 예언자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순종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것을 알거나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전례에 대한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그 의미도 흔들립니다. 나이아아에서 28장 30절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에 조그, 거기에 조그 인간인 가르치려고, 내 교훈을 귀와 들고 내 권고에 귀를 가는 자에게 복이 있겠으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하하 주며, 낙하락 노라 하고 하는 자에게서는 가진 것조차 빼앗아 버리라.”

그리고 나서, 나이아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는 듯, 끝까지 갈까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설명합니다.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며, 그 불굴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순종하여 여행할 필요한 희망과 자비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이아아에서 31장 20절에 나와 있는 요건과 약속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밑과 밑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협치대 가야가라 하십시오. 함께가 있으면서 너희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게 지키며 끝까지 창조없는 보라 저희께서도 이르시어 너희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나이아라는 예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기도로 구해야 하는 은사를 듣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나이아그리고 기여해서 예수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나이아아에서 32장 4절과 5절에서 그가 한 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므로 내가 이렇게 야기한 뒤에도 너희가 이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쌓아온 바르고 진보되지 못하고 흔함에 이끌려 가 별명당하시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데 말하거니와,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산을 받으니 성산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든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나이아라는 기도에 대해 더 설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버지가 너희가 마르로 염절함을 아노니, 이 일이 나를 슬프게 하여 이러한 것을 말씀하게 하였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알으시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려 면 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합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두 함께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목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너희가 행한 일을 때에 성결히 하시리라.

기도하려 한다는 정교를 우리에게 주고 난 뒤, 나이아라는 모범으로 우리를 가르치옵니다. 3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성결하게 향을 내가 알며, 내가 기도한 바 나악한 것을 저들에 대해 갚게 하시시기를 내게 안의 날이 저들에 선한 것을 권고하리며 저들의 조상에 대하여 알게 하며, 예수님을 전하여 저들로 예수님을 부르게 하며, 끝까지 진리의 영광을 얻도록 권고하리라.”

이곳에서, 제 질물에 대한 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질물이 무엇이었는데 여러분은 기독히 고신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공부해야 하느 geile와 제가 함께 있을 동안, 또 그 이후
에 우리가 희로시림에 마주쳐 될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음께?
제가 찾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저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서는 그들과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을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그 빛은 곧 거두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대로 삶 할 때 오는 평화와, 내세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이며. 그것은 영형으로 지금 그리고 미래에, 자와 지의 학생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시도록 다시
그러나 저는 이언자가
여호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 주님께
마음을 돌린 시대에 관해
공부하고 가르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걱정드렸습니다. 론니 부대판장님은 구약에서 무엇이 중요 한지 나타내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 범망을 정하고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와 다른 예언자들이 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막히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분명 그러한 주제들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질문인 “구약전서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에서 무엇이 학생들과 나에게 가장 가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들입니다.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가지 제언

이제 제가 론니 부대판장님의 권고에 따르도록써 배운 교훈들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배울 수 있는 것을 더욱 더 잊지말아야 합니다. 영이 그들의 말씀을 통해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의할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께 서라도 배우기를 기대하면서 잡식할 수 있는 한 모든 수업에 참석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들에 의하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을 잊을 것입니다. 늦으므로 가르침 받 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에는 실질적인 힘이가 있지만, 배우고자 굽어 결심하는 데에는 힘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구제주의 전반의 사항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은 극적인 이야기와 매혹적 인 판습, 아름다운 문학의 형태로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자와 약혼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께 마음을 돌긴 시대에 관해서 공부하고 가르 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백성이들이 억속된 인류의 구제주로부터 마음을 돌려 비참함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소중을 느끼곤 했습니다. 믿음 이 려분이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라면, 한 가지를 억속드릴 수 있 습니다. 즉 영이 찾아올 것이며 여러분은 사람들의 비열한 사악 함이나 가증함을 느끼게 되고, 그들에게 허락과 우상 속에 대해 경고하시고 나아가고 건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숱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사악함과 비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손길을 뻗으십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예언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리뿐 아니라 그들의 마 음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쉽습니다. 

용과 예레미아가 어떻게 겪었을지를 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과 예언자들이 겪었던 시련을 알기 위해 기도하 고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이에 그것을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악속드릴 수 있습니다. 나여이는 성약이 꼭난 무렵 저는 그와 함께 하리고 노력했습니다. 나여이의 시험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미래에 그를 만 날 때, 그는 제 눈번에서 그에 대한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더욱 조실프리하게 성심을 지니는 동반자 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알리므로 다른 사람들들은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잘 안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저와 성공을 부드럽게 할 때 그들은 제 안에 잔뜩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제 인내심이 좀 더 커졌고, 그들에 대한 저의 관심도 좀 더 커졌으며, 면죄부나 고백하는 일이 조금 더 줄어들고 조금 더 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전에 저와 함께 했을 때보다 더 행복한 느낌을 듣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해드리고 그분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모 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해답입니다. 이 해에 여러분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총결함입니다. 구제주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 대해 엄려하고 계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분이 구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여러분의 노 력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꺼이 여기신 것을 앞으로써 기쁨의 열매를 맛보시도록 축복해 드립니다. "

1999년 8월 10일 브리검 링 대학교에서 교회 교육 기구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이때를 위"(에스더 4:14)해, 자신과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받았습니다.

마에, 한 상호부조회 교사는 
반원들에게 그들의 경직거리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달 
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에 대해 걱정했으며, 어떤 이들은 쇠퇴한 
진경에 대해,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고 
봉과 다른 어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몇몇 자매들이 토론을 하고 난 뒤, 20 
대초반의 한 젊은 여성의 손을 들고 이 
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외드 
에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자매님들은 저의 
교사이며 저의 홍양한 친구들입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들 
고 보니, 저에게도 닥쳐드릴 그러한 문제들 
을 제가 과연 잘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 
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앞으로 도전에 적면하고 성장을 결 
계 되며 살아가 환엽까지도 느낄 수 있 
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경직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까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메리 앨런 더 
블루 스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이 시기에 ...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납을 알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정 
정과 예언자의 가르침, 그리고 그 두 가 
지 모두에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모 
든 자녀들이 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Sweet is the 
Work[2000], 56쪽)

여러분과 근심, 일상의 문제와 경직에 
대한 도움은 성으로 고대와 현대의 예언 
자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의 가족에 
게 이가야의 기록을 읽어 준 것은 의외한 
일이 아닙니다.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리파이임서 19:23)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예언자의 가르침은 자 
신에게 비주어 봉으로써 안전을 찾을 수 있 
기에, 우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의 말씀과 말씀의 지도자의 권고를 상 
고하고 그 신앙을 생활에 적용하기를 바 
랍니다.

자매들의 경전 공부를 돕기 위해, 연차
위 하여

대회 특집호를 제외한 라이호나 매월 호 에 게재될 새로운 형식의 방문 교육 메시지를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번호, 24쪽 참조) 올해의 각 메시지는 상호부조회 선언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머리 앰린 더블류 스파우트,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라이호나. 2000년 1월호, 111~114쪽) 각 메시지에는 해당되는 경전의 말씀, 선정된 교회 지도자 들의 말씀,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토토론을 활발하게 펼치는 질문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범세계적인 규모로 서로를 방문하면서, 모든 자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됨 것이며, 경전과 하나님의 자매들의 경전 공부를 돕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방문 교육 메시지를 소개 합니다.
중독의 영감 받은 가르침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왜 방문 교육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방문 교육을 해나가며요. 종교 사람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방문한 시간을 내라고 요구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배신이라 일정을 받아서 와가” 원했을 때, 우리는 참여를 받아왔습니다. 참여를 통해 우리는 “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했으니, 예를 들어는 지하철이 예측하고 그날 당한 것을 위로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선 병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사 아야서 18:8-9)였다고 했습니다.

방문 교육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따르며,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님의 왕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쉽게 혼자서 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령님은 상호부조 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가난한 사람과 빈곤 사람, 궁핍한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려움과 빈곤의 영적 복지 및 구원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의무의 일부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의무의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대관령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85쪽)

방문 교육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보살핌과 세상적인 보살핌 모두를 제공합니다. 메시지를 나누는 일은 이 보살핌의 중심이 되며, 특히 전통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통렬하게 근거한 메시지를 나눌으므로 

다 우리는 방문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져다질 수 있습니다.

방문 교육 메시지 활용

새로운 형식의 방문 교육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가치 요소는 기본 주제, 관련 성공, 예언자의 사도와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토론을 위한 질문이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강화시키는 방문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교사와 매우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게서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교리와 성경 50:22 참조) 자매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영적일 것입니다. 또한, 전통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들을 우리 일상 생활에 적용하겠을 때의 느낌을 나누면서 우리의 객관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경험을 알아 주기 보다는, 직접 하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통찰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자매 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권유할 수 있습니다. 직접한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질문을 활용하
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경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점 말해 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경전이나 교회 지도자로부터 귀중한 진리를 배울 때 영을 느끼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도 정원의 날 애이 막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은 그리스도 교계에 관한 진리, 인류와 그분과의 관계에 관한 진리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 미에서는 노래책에도 갈 길입니다. 거기에는 부르고 들어야 할 많은 멜로디가 있습니다. … 우리는 개인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특성한 경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스스로 노래책을 봐보고 그 음악을 들으려 합니다.”(A Time to Choose, 1972, 52쪽)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교사의 배우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게서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방문 교육 메시지의 권고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통찰력을 나눌 때, 말일의 예언자 교회 지도자 그리고 교회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경전은 변화가 없으며 영원합니다. 현대 예언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음성이나 내 종의 음성이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자매들이 경전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우리 자매들의 가정에 더 큰 권세로 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찬양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의 접지 아 니하나요?”(누가복음 24:32)


셋째, 아버지, 할아버지, 아내, 자매, 딸, 그리고 이모와 고모로서의 우리가 강화될 때, 가족도 강화될 것입니다. 영을 몰불 때, 경전 공부를 통해 개인적인 제시를 받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녀를 빼앗기며 진짜”(교회와 성도 93:40) 안에서 키우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자신과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지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모두 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니레이 이서 32:3 참조) 우리는 혼자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없애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랜편과 원편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그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감싸는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큰 평화와 함과 위 안을 느낄 것입니다.(교회와 성도 84:88 참조)

여섯째, 구세주의 대신 우리의 간중과 속죄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와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그 자비심으로 우리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통하여 우리까지 성결하게 되리라.”(모로니서 10:32-33)

일곱째, 자매들은 아들을 제신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에 매달리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살도록 들여올림을 받아 줄하는 행복의 상대로 살”(알마시 28:12)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의 방문 교사들이 말씀의 진리 를 공부하고 증가할 때, 이 범죄체적인 복음 공부의 축적된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자매, 모든 가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강화될 것입니다.

도전

이 새로운 메시지 형식을 통해 우리는 방문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매들과 전문가들로 만남, 놀부의 관계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
쓰하겠듯이,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으므로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잊어 줄 수 있느니라.) (로마서 성경 18:34~35)

우리의 자매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도록하는다짐을 새로이 하고 축복 받은 기회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로마서 성경 88:77)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구약신서의 에스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로부터 저지와 도움을 구하고 에스더가 받았던 질문인 "내가 왕주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에스더 4:13~16 참조)라는 말에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방문 교사로서 서로를 돌보고, 주님의 말씀과 영을 우리 자매들의 집에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 모두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증거할 때,
이 범세계적인 복음 공부의 축적된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자매, 모든 가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함

문한 자매들과 함께 다음 말씀을 잊고, 질문과 정전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제와 건강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도 건강을 나누어 달라고 권한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회부조회의 새로운 모토는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의 백인이다.’ 하나님의 백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의 소장, 문자 그대로 저축한 아버지의 후손으로 그분의 속성과 삶의복을 상속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거들 대 아너서, 타락한 육욕의 교경이 의로운 것 (모시아서 27:25)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든 비 히글리 대관장

“畏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해하면서 고결한 삶을 살고, 자신의 몸을 성스럽고 신성하게 어껴 존중하며, 정신을 연마하고 지식의 경계를 끌어내리 넓혀, 영원한 영뢰로 영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인이다. 전능하신 분의 모든 창조물 중에 더 아름답고 고무적인 것은 없다.” (Our Responsibility to Our Young Women, 엘사인, 1988 년 9월호, 11쪽)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훈전하고 돌거운 사랑에 구속하는 삶을 사심시오. 세상의 다리목 위로 알아내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인이 신성한 생명권을 소유한 자녀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고개를 높이 들고 의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으며, 주님 왕국의 일부이고, 다른 이들에게 말길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시달사를 아십시오.

-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여러분이 신성한 성체를 지닌 하나님의 백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자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에서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대답을 정해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니의 대답

부적절한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을 모든 상황에 대해 똑같지는 않 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이야기의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말에는 항상, 비꼬, 거짓말, 저속한 이야기, 그리고 신성 모독 등이 있습니다. 때때로 친구들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절대로 일개워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특별히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

독자들의 대답

저는 종종 하나님의 관점들과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대체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은 도서관입니다. 시험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히 해 드릴 수는 없습니 다.

로렌조 나이 아시에 마에로스
가나 캐프 코스트 스테이크
캐프 코스트 제2야드

저는 12살에서 16살의 학생들을 가르 치는데 거의 매일 학생들이 하는 욕설을 들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학생들은 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무심코 욕설을 내뱉을 경우 대개는 즉시 사과합니다.

저는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 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정말 그런 의도 로 말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말을 하기 원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스 로스
스위스 취리히 스테이크
케이징 와드

제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저속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를 피했지만 나중에는 좀 더 당당해가겠다고 결심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함께 나눌 좋은 생각과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의 생각을 부적절한 것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이тельных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런 이야기를 즐기게 말라는 저의 요구를
“사악한 이야기를 피하시십시오.”

“사악한 이야기를 피하시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만행하며 일어나지 마십시오. …

전통하신 하나님이나 그의 사랑하는
어른의 이름을 존경하게 사용하는 것이
남자아무(혹은 여자아무)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사귀십시오.
여러분은 일 침서 다른 길로 이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친구를 따라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겹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일 때 그들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도 또한 그들을 구해 줄
것입니다.”

— 고든 비 헨델리 대관정(“청소년들을
위한 애니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6~37쪽)

해 심한 말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혹은 주님의 이름을 육체계 사용할 때 지적
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저와 있는 사이가 아닐 때 그의 행동을 고
쳐 주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주체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그
들과 부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몇은 것이기 기회에 좀 가게 할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 주위를 떠나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
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학생들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이나 급우일 경우, 여러분은 그들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
면 그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준에 대해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많은 받아들이는 방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은 스펜서 커버 대관
장(1895~1985)이 병원에 있을 때 “그는 젊은 병원 직원에 의해서 운반대에 실
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잘못하여 금속 물들과 금속 절대를 사
에 손을 쳤습니다. 이 불상사가 발생하자 그 젊은이는 아픔을 못 이겨 꽤히
구세주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어났습니다. 여자인의 몸을 축척하여 눈을 놓고 조용히
그 젊은이를 내쫓았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요. 그분은 나의 가장
한 친구라고.”(로버트 이 멜즈, “구세주의 친구가 되고 중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성도의 범, 1983년 1월호, 107, 108쪽) 그러한 꾸짓음에 누가 기분이 상할게
나나?

가장 유용한 권고는 영의 인도를 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한 준비를 하십시오. 때로은 응답이 오지
만 그것에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올 수도 있
습니다. □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시면 경의 응답한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2년 4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WSTIONS AND ANSWERS 04/02,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첨부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받은 편
지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제 친구들은 제가 승가의 범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본문
밀 이상의

어 느 토요일, 나는 거실에서 교리와 성약 20편을 펼
놓고 앉아 있었다. 77절과 79절에 있는 성찬 기도
를 천천히 읽으면서 기역하여(remembrance), 제명
(commandments), 성결케(sanctify) 등과 같은 발음하기 어
려운 단어에 머물렀다.

나는 외에서 나의 많은 제사에 속했으며 성찬을 촉복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성찬을 촉복하는
동안 정진한 영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늘
기도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포악도 바인으
려고 애썼다. 그러나 제사 정현의 고문으로부
터, 최근에 정현회의 회원이 된 제트가 처음
으로 성찬 촉복하는 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
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그가 기도를 끝까
지 못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아홉 살 때 우리 가족이 제트의 아들으
로 이사 온 이래 나는 그를 알고 지내 왔다.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제트는 내 포래었으며 우
리는 친구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제트가 아름한 신권을 받고, 교
회, 농구 팀에서 경기를 하고, 스키와
등과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
보며 너무나 기뻐했다. 그러나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메트가 신권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러웠다.

메트가 함께 성장을 축복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의 업무에 미소가 가득했다.

"피터, 임지, 다음 주에 행이 귀한데, 너무 신이 나," 하고 그는 응분에서 말했다.

"그럼 잘 됐구나, 메트." 그가 처음으로 성장을 축복하는 날 이 그의 형이 신권에 귀한 보고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나 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의 착척들도 착척할 것이다. 그날이 메 트와 그의 가족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 었으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랐다.

축복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동안 이 신권의 의무를 수행하 는 방법을 배우는 메트의 결심에 나는 감명을 받았다. 우리 는 축복문을 여러 차례 읽었으며, 밀줄 친 선호들을 집중적으 로 연습했다. 연습을 마쳤을 때, 메트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 으며 축복문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잘 모르 는 사람들이 그의 발음에 어려움을 줄임이 하는 걱정이 들 어올riz.

일 주일 후, 성찬대 앞에 메트와 함께 않았을 때, 나는 마 음이 불안했다. 메트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방당 앞 자리에 앉 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흔적이 겹려진 빛으로 차 있었다. 그들에게 미소로 응답하는 메트는 나만을 애도되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하루 전 날, 축복문 읽는 연습을 다시 했으며, 나는 뭔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성찬기를 집사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아주어야 할 것 중에 빼버린 것이 있거나 잊은지 혹은 그가 잘해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성찬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빵을 테 기 시작했다. 메트는 엄숙한 표정으로 빵을 들고 고개로 때어 성찬기에 길고무 페 놓았다. 그는 언제 다시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내게서 눈을 벌리지 않았다.

찬송가가 끝나고 나는 메트에게 "무릎 꿇을 시간이다."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메트는 주의를 기울여 주 의 깊게 탁대한 축복문을 읽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풀 수 있고, 그가 기도를 드릴 때 나는 대부분의 화산들이 그의 말 을 이해하지 못하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메트가 축복문을 읽을 때 나는 영이 잔여하여 이 성서로운 의식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것을 느꼈다. 메트가 기도를 마쳤고 우리는 일어어서 집사들 에게 성찬기를 건네주었다.

저리에 앉아서 나는 메트의 가족과 외도 친구들로 가득 찬 회 중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축복문이 끝나면서 사람들도 잊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을 느꼈으며 메트의 분장하고자 하는 의도 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찬송가가 된 메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사할 방 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음악 지휘를 하고 신권회 집회 순서에서 기도를 할 사기를 선택했다. 또한 스카우트 대장 보조와 스테이 프신교사로 분사했으며, 정기적으로 성찬에도 참여한다.

나는 교회와 성약 20편을 벌릴 때마다, 징계에도 불구하고 분사하고자 하는 메트의 결의를 생각하게 된다. 구세주를 잃기 고자 하는 메트의 모범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성찬 축복 문이 발효하듯 "항상 그를 생각" (교회와 성약 20:77)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었다.

피터 비 가드너는 유타 오브 레이크부 스테이크, 레이크부 제1와드 회원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본 비 형글리 대관장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거인은 세상에서 점점 커가고 있는 악의 형태로 올 수도 있으며, 순전히 개인적으로 맞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어려움에 혼자 맞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맺는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려 하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형글리 대관장은 이렇게 썼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켜 보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할 권력이 있습니다. 곧 전과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어려움에 혼자 맞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맺는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피나리가 있는 편
리비아 루이스 세자

“피나리의 날카로운 이빨들은 본 우리는 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계속하여 퍼져야 했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약속을 무시하였으나, 한 교회 회망은 실제로 몰고기를 잡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피나리의 날카로운 이빨들은 본 우리는 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계속하여 퍼져야 했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리 아호나
와 맛대기에 동의 장애물들이 담겨져 와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다. 우리는 침례를 줄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다.

마침 후에 우리는 한 회원이 갖고 있던 작은 물병크에서 침례를 행하기로 했다. 물병크가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들어가 침례를 집행할 수 있음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개종자와 신변 소유자는 함께 물병크 안으로 들어갔으며 개종자는 참수로 서의 침례를 받았다.

다음 주에도 침례가 있었지만 물병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사이드 옥주에서 침례를 집행했다. 다시 한번 개종자와 신변 소유자는 조그만한 잔치 차례를 했다. 참례를 받는 소년은 불에 감기 위해 무릎을 꿇어 얻었다.

그 침례식을 마친 후에 우리는 앞으로 참례식을 행할 장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일요일에 참례를 받기로 한 사람이 세 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났다. 다행히 지방 대회가 아주 바쁜 에서 개례식 예정이었으며 그곳 참례소에 침례장이 있었다. 우리는 참례를 받기 위해 그곳까지 여행을 했다.

참례식에서 신교부장은 바이오렌스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그 곳에 마을에 참례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너무 기뻤다.

바이오렌스의 경험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항상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사업은 피하나가 있는 일 없음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타이어 루이스 제작은 리스 대학교 제 3 스테이그, 제 44와드 회원이다.

** 내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

타이어 마르틴스 레일

1999년 11월 어느 저녁, 가정의 밤을 끝내고 장자리에 들무렵,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다음 주에 금식주의를 할 것임을 잊지 말고 맡 Marlins 미스터, 1995년 메이저 루리스의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물리치'를 읽기 시작했다. 메이저의 마지막 부분은 '금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다.

기사를 다 알고 나서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런 다음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라이아노를 다시 잡았다고 책을 넘겼다. 바로 그 다음 기사의 제목은 '나의 기적'이었다.

이 기사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한 젊은의 경험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때, 나는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에 감독님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감독님은 내가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젊은의 기사를 알고 나는 감독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해했다. 이 일에 대해 나는 기도하거나 금식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기사를 다 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게신 아버지께 칭찬하케 기도를 드렸다. 생전 처음으로,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책을 내려놓고
나는 가족과 함께 1995년 2월 5일에 필리핀 제네럴 산토스에서 체를 받았다.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풍족한 생활을 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며 나는 사립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였으며 어머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품 사업을 관리하였다.

우리 가족은 일곱 명이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밀리 밀리 살고 있었지만 일요일 예배와 다른 활동도 있을 때마다 늘 교회에 갔다.

사례품 가게가 저로님 코코넛 나무 한 그루가 바위 바위 지프차 위로 넘어졌다. 지프차의 주인은 묻시 화가 나서 망가진 지프차를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많은 돈이 없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휴가를 보내서 어머니의 일을 들보고, 어머니는 오빠, 언니 그리고 나와 함께 학비를 내려 학교에 가야 했다. 그날 어린 사람이 코코넛 나무를 뿌개기 위해 우리 사례품 가게를 찾아와서 망가진 지프차를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그 일을 감독하면서도 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 코코넛 나무 하나가 매우 비싼 지프차 위로 넘어졌다. 어머니는 제 hacienda 사고 현장을 담려갔다. 지프차의 주인은 묻시 화가 나서 망가진 지프차를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많이 나무를 내려는 것처럼 느꼈다. 우리에게는 그 많은 돈이 없었다. 아버지는 조기 퇴직을 신청했으나 퇴직금으로는 순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다. 가혹자는 구금되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던 사례품과, 집, 땅, 그리고 다른 소유물을도 여러 개였다. 한 손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올로 남어서 이 난란을 맞이해야 했다.

우리 모두에게 묻시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신앙과 확신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가 범죄에 휘두려했던 날 우리는 급식하고 기도했다. 급식과 기도는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가릴 수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와 주셨다. 주님은 감독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 주셨다. 감독님은 우리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했다. 두에 다른 한 휴식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 나서 그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새학년이시작되었때나는오빠,언니그리고나가다시공부할수있게해달라고기도록 lắng었다.기도,신앙,그리고소망을통해우리는동이없었음에도 불구하고여전에머니한테학교에다닐수있었다.나는그때내생애의다른어린때보다도더هن에계신아버지의사랑을느낄수있었다.

여름은상황에서도우리가충실하고기도하고순종한다면하늘에계신아버지께서는우리를도와주실것이다.그뿐은우리가지어모든것들을다시시작하고계속해서나아갈수있도록도와주셨다.나는우리가계속해서제명에순종한다면,계속축복을받게될것이라는것을알고있다.

“내가약한때에
강함이라”
개리프루엔시오파브로스

신체적인장애로인해나는세상사람이가힘들었으며매로남답했다.불행한편견과마주쳐했던제임조기에의해히이어졌다.1989년5월,열째살이었을때,마을에있는중학교에서는내가함께어려워하는신체장애를갖고있는이유로나의입학을거절하였다.중학교1학년때,한교사는심장작동신호수를주었다.신체적인장애때문이라는생각이들었다.

당시나는인생에서일어나는이러한불행한사건들을어떻게받아들이야할지몰랐으며,그것들이내게주는교훈에대해하늘에계신아버지께서어려움을두려워할것도없겠다.그러나기와정신
공부를통해,나는이러한어려움을갖고도감사할수있다는것을알게되었으며,동시에나를거부하고나담시키는사람들을선하게대할수있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고린도후서12장7~10절의사도바울의말씀을내는나의자신을대적하는
주임을자신을치는‘사람의사자’에비유한것을알았다.그는주님께이러한
고مون주님께서주시도록간주하였으나주님은다음과같이대답하였다.‘내은혜가
네게즉하다나이는내능력이약한데서
인하면이겠지’

새일이흐르면서나는구세주의격려를느꼈으며,그격려를통해나의신체적인
장애에대하여나의은혜가즉하다는것을쾌득하게되었다.

1993년3월27일,나는우둔생으로고등학교를졸업하였다.시즌은나에게시련
에근무하도록제안하였다.그곳에서근무하는동안,나는언론에관한입직과정을
마칠수있었다.

신체적인장애와어려움에대처하는일은거울보고어려움을느꼈다.그러나신앙
과의의주님의영감을통해나는사도바울처럼,‘내가약한그때에강함이라’
(고린도후서12:10)라고말할수있음을
알고있다.

개리프루엔시오파브로스는캘리포니아마커니스트레이크만담부등제1와드회원이다.

어머니의마음을
부드럽게해주세요
어릴🙏세뇌오르타

1992년10월어느날,개이프베르
데에있는학교에서집으로돌아오
는길에나는런처에네테이크를 맨두
절은이를보고였다.나는그들에게박을걸
기로했다.대화하는동안그들에게발
산되는큰사랑을느낄수있었다.그들은
자신들의어묵과그들이다니는교회의이
묵을말해주었다.교회의어묵은아일성
도예수그리스도교회였다.그런다음그들
을 갖고있던가족사진을보여주었다.

또한우리집으로가서가족을 만나고.tiles
라고말했다.

그들이집에있을때어머니는친절했지만,그들이전하는사건에별로관
심이없었다.그러나나는토론이무리재
미하였다.할때마다매번이전토론보다
더재미있는것같았다.예언자요셉
스미스의간증과회복된목록에대한소
식은 내가들어본것들중가장놀라운
사건이었다.그들은참으로나의마음을
변화시켰고,결국,선교사를참여하고
해인금되었다.어머니는내가교회에가입
하는것을완할지않았으며따라서참배
받는것도허락하지অ우러했다.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공부했으며 모든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했다. 그러나 또한 어머니의 뜻에 순종했다. 장로들은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 참례 받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어머니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성찰식에서 한 자매 선교사가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은 감동 주었으며, 나중에 집에 와서 나는 그녀의 말을 잊지 않게 생각해 보았다. 성신의 속죄에 따라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옥상 위로 올라가 내 마음을 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렸다. 교회에 속하고 싶은 갈망을 하며 넘겨 담러 올기며 어머니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참례받는 일을 허락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도였고.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참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한 마디 반대도 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참례를 받아라.” 나의 마음은 흐뭇하고 하나님이 대한 친교로 가득 찼다. 그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많은 친절하신 분이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하신다.

이날은 호세 오르타는 케이프 베르데 프라야 자병부 프라야 제1 지구 회관이다.
해럴드 비 리
위대한 교사

제11대 교회 대관령의 모범에서 우리는 담을 찾기 위해
주님과 경전에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1970년 4월 해럴드 비 리 대관령은 폭발 사고로 고
장이 난 아폴로 13호가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
신고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시도하는 장
면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았다. "은 세세가 한 가지 중요
한 결과, 즉 용감한 세 사람이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기
을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한 가지 중
요한 복음의 교훈을 찾아냈다. "세 사람의 안전은 이제... 기술
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지역들에... 참대적인 순종에 달려 있
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주선은 지구에서 수천 킬
로미터나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사였던 리 대관령은 그 극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아마
지의 만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분께 귀탈을 갖고 또 순종하는 것
의 중요성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아내었다. 리 대관령은 이렇게
말했다. "아폴로 13호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귀탈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주
님의 길 안에서 궁극적인 안전과 보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영
생에 이르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곧 곧은 길을 따르는 것
을 강조하는 것은 리 대관령이 다룬 주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
였으며, 그 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일생
의 과업이었다.

교회 제11대 대관령으로서 리 대관령은 1972년 7월에서
1973년 12월까지 17개월간 봉사했으나, 그가 미친 영향력
은 그 짧은 기간만 넘어갔다. 그는 1930년대에 교회 최초의 북
지 프로그램을 감독했고, 31년 동안 싱어소리 정회의 일원으
로 봉사했으며, 신학의 걸러 애구 교회의 모든 행정 부서, 보조
조직, 그리고 가족들을 모으는 목적으로 1960년대에 시작된
상호 연관 프로그램을 주관했다. 상호 연관 프로그램의 의도는
가족 및 가정을 강화하고 지원하며 가족 및 가정이 영생이라는
신성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과
정을 거치면서, 그는 경전을 배우는 학생이나 복음에 기르치는
교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해럴드 비 리의 가르침은 2002년 밀기세워 신경 및 상호분
조회 교과 과정으로, 교회 대관령들의 가르침의 세번째 편이다.

영에 귀기울임

해럴드 벤로 라는 1899년 3월 28일에 아이다호 주 클리프
턴에서 새뮤얼 메리에 리와 루이자 에밀린 벌리의 아들로 태
어났다. 클리프턴은 깨끗한 공기가 많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전통과 비포장 도로가 하나 둘 뿐이었다. 이
남의 그러한 평화로움은 어느 소년이 일생 동안 그를 인
도하게 될 고요하고 조그만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었다. 그가 가족 농장과 과수원을 둘보고,
소젖을 채고, 피연노를 배웠다.

그의 부친이 감독이었기 때문에 어떤 해럴드는 교회 복음가
운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비 형클리 대관령은
이렇게 기록했다. "저는 부친에 둘 감독에게는 성숙한 사람
들을 보살핌 책임이 있었습니. 그 감독은 자신의 창고를 운
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물품들은 그의 식료품 창고에서
나온 것이었는데다. 가족들은 받아서 그가 말가루 한 부대를
개내는 것을 보곤 했으나,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밀은 엄격히 지켜져야 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어린 해롤드는 어버지와 함께 했던 경험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이 의미를 배웠다. 제가 일 일이 염한 일이 할 때까지 저는 어려서 할 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버지께서 집에 거실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어려서 할 일을 잡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 근처의 올타리 귀부에는 소년의 호기심을 발생시킨 만한 대 스러져 가는 헛간들이 있었겠습니다. 모험심에 빠졌던 저는 올타리를 탐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쪽으로 가서 말하기를 "어린이가 말하기"라고 말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버지가 빼빼는 것은 이 내부의 깊이를 드러내어 어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버지는 한참 머리 말이지, 발 저편 과트 머리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이 이었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제가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음성은 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도 알 수 있었나요."'

성경의 복음과 관련 있는 이 정신은 해롤드에게 하나님이 어버지의 왕국에 도달하는 인생을 같을 그 음성을 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발성을 담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잔치 가르쳐 준 사실이 주님의 소중한 것에 대해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 아스리엘에 계명을 지킬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생활할 때에만 주님의 성령의 동반과 지시, 위안, 그리고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해롤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인, 아이하우 주 프레스턴에 있는 오데이나 아카데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그는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아이하우 주 올버른에 있는 헤들리 주립 사범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7세에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18세에 아이하우 주, 올버른에 있는 지방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21세에 그는 미국 서부 선교부에서 부사했고, 그곳에서 텔레파더스를 잡았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슬트레인시티에서 온 선교사 페인 루나와 대런을 만났는데, 그들은 "동료들에게 총명하고, 아름답고, 걱정에 대해 매우 비범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말해져 있었다." 선교 임지에서 귀환하자 그는 평 그녀에게 칭혼했으며 그들의 결혼식을 참석한 후, 이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그는 1923년 11월 14일 슬트레인시티에서 결혼했으며 평 두 달, 모린과 헬렌이 태어났다.
이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리 형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트럼펫을 일으켰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어느 해 여름에는 내쉬 자동차를 만났습니다. 또 나중에는 ZCOMI 식료품 부서와 베테트 가스 정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영감을 주는 책들을 출판하던 Foundation Press의 영업 사원이 되었다. 그는 학교 교사로서 사망하고 그 회사의 미국 서부 지역 영업을 관리하게 되었다.

1930년대 초에 해롤드 빌리던 솔트레이크시티 행정관으로 임했다. 그는 취임 첫 해에, 바탕을 줄이면서도 대인 봉사를 향상시키는 경제적이고 유효한 공무원으로 명성을 얻었다.9

성도들에 대해 일람

31세의 나이로 솔트레이크시티의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장으로 부름 받으면서 리 스테이크장은 그 당시 가장 나란 아닌 스테이크장이 되었다. 때는 1930년이었다. 전세계적인 긴급 불황이 시작되어,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7300명의 회원 가운데 4800명 이상이 도움을 필요로 했다. 리 스테이크장은 해야 할 바를 알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간구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성신의 영감에 귀泥하여, 그는 클리프트리에 있던 부친의 외도 장교를 본 판 스테이크 장교를 세웠다. 더 나아가 그는 스테이크의 대형 농장 관리나 스테이크 재무관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마련해 실질적인 사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10

리 스테이크장의 지도력에 감명을 받은 대관장단은 임임한 경제 상황이 교회 구식 구식에 영향을 미치자, 1935년 어느 날 아침에 그에게 새로운 복지 계획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것이 “교회가 가난한 지식들을 자세히도록 돕기로” 하는 계획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그 즉시 주님의 지시를 간주했다. “그날 아침 이후 제 차를 타고, 로디라 공원이라고 불리는 시티 크리크 캐빈 근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로 제 평생에 가장 큰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대관장단이 제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세워야 할까요?” 그 영광스러운 일정에, 저는 하나님의 신심의 믿음에 대한, 늘어나는 나의 신실한 관찰을 증명 하였습니다. 무엇인가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필요한 사양을 충족시켜 줄 새로운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신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11

곧 스테이크 농장들이 세워지고, 공장과 창고가 건설되었으며, 궁핍한 교회 회원들이 신님이 지시 아래 일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영을 통해 해롤드 빌리던 주님과 함께 한 해롤드 비리.
결과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6년 동안 복지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던 1941년 4월 6일에 해롤드 바리라는 성인회를 일원으로 부蜢을 받았다. 사도로서 그가 했던 "감싸 있는 복음 설교"에 관해서, 그의 말 혜령은 이렇게 화상한다. "아버지의 미사 여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하였죠. 순종과 경전이 기증이었습니다. 놀라운 만큼의 확실함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만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다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느낌

맨위: 1933년경의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및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감독의 칭호. 해롤드 바리는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으로 복장했다. 원문: 리 창조(원작)는 1949년에 조지 헬버트 스미스 대관장, 성인회 보조인 베리온 지 롱리 창조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하이브 콜로니 밀즈를 방문했다. 아버지: 해롤드 바리는 부친의 외할 형고를 본떠서 스테이크 창고를 만들었다.

이 어머니 알게 됐어요. 자신을 나누어 주셨죠. 아버지의 설교에서는 경전과, 말씀의 주제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경전에서 찾았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경전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경전에서 말씀의 주제를 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절히 설명하고 싶다면, 저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4대 경전으로 그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리 창조는 사도로서, 솔트레이크 성전의 이층 방에서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모임과, 그가 경전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에 대해 기약한다. 이 모임들이 끝날 무렵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모든 답들은 경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에 대하여 저는 감히 경전이나 교회 대관
장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 답하려고 시도하지 않음을 보입니다."^{15}

가족을 이끌어가지 않고 해볼 뜻 바라는, 수년후에 쓰여지게 된 그의 권고대로 생활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명은 여러분 가정의 온라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말들이 그에게 복음에 관한 질문을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를
아, 경전을 깨내 오거라, 그 문제가 대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
쇠하였는데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는 말들에게 경전에서 바
로 것은 내용을 가르쳤다. 말 헤클리고야는 이렇게 기억한
다. "저는 나중에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 중요한 교훈을 배
울 수 있는 몇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 알게 되었습니다. 그
렇게 하여 아버지는 면치 단을 구해야 할 만한 경전이라는 것
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15}

맨위: 1942년의 설해사도 장원회 회원들: 헬로우드 비리, 실베스터
큐 캐디, 멘버츠 이 보우먼, 첸즈 에이 할리스, 조셉 에프 헤럴
존 에이 레이, 리치드 알 라인, 스티븐 엘리차즈, 조셉 필딩 스미스,
조지 에프 리차즈, 루드거 클로운, 짱진 사람: 조지 멘버츠 스미스.
원내: 1965년의 설해사도 장원회 (원측부터): 고든 비 허들러, 멘버츠
엘 스테이블리, 에즈라 테드로 빌슨, 마크 이 피터슨, 토마스 에드
로돈, 스펜서 더블리 캐런, 헬로우드 비리, 조셉 필딩 스미스, 매리온
지 톨니, 리차드 엘 아반스, 라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리 헌터.

가족 기도에 관해, 헬렌은 이렇게 회고한다. "발의 의식은 거
실에서 우리 내 식구가 다 함께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로 시작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우리 물을 양쪽에 한 명
씩 안고 척대로써 대략 2주를, 우리는 차가운 마루 위를 걸
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16}
리가정의 평온함은 아내 테니리가 보여 준 현신의 결과이기도 하다. 텔레비전을 이렇게 화상한다. "아버지께서는 활동적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분이죠. 아버지는 자신이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버지는 사회 활동이 많았기 때문 에, 아버지는 가정에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께서는 가정에서 벗어나 평안과 휴식을 찾았습니다. 거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사 람의 영과 고요함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영적인 것이었어요. 또 풍미 있는 생활 감각과 따뜻함, 사랑, 차분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Midnight Fire Alarm'을 연주하면서 우리는 거실 주위를 행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열정적인 연주로 피아노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신권을 강화함

1960년대에 데어비드 오 백배이 대관천은 리 장로에게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하나님이의 순종, 가정과 가족의 신성함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시키는 대규모의 작업을 지시했다. 상호 연관을 위한 노력을 모든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교회는 이로 인해 이 시대에 교회가 맡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도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었다. 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해외 개척적 으로 말씀드리지만, 상호 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관을 하나님이 내린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라 해서 가중하는 것이요, 또한 말일성도 가정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계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리 장로가 상호 연관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새로운 신관 가정 복을 프로그램, 정신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교육과 과정,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신관의 더 풍부한 면밀한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총 관리 영원의 지지 아래 새로운 교회 잡지가 발행되었다. 교회의 연차대회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천(가운데) 및 대관천단 제2보좌 인 엘런 테니 부부(좌측)와 함께 한 대관천단 제1보좌 리 부부(우측)

신권 정의화와 보조 조직은 교회의 각 개인과 가족들을 강화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도록 지시를 받았다. 1965년부터 각 가정은 1915년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다시 혁신된 가정의 역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음

교회 대관장으로서 간증하다

1970년 해몰드 비 리 장로는 제1부 제석 밀딩 스미스 대관장의 제1보좌가 되었으며 1972년 7월 7일에는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 다. 대관장으로서 여러 메시지를 교회 회원들에게 주고 싶으나는 질문을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이 독특한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제 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속에 교회의 안전, 그리고 각 개인의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11

상호 연관 프로그램에 관한 일을 행하면서, 그리고 교회 대관장으로서 그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력들이 "인간에게 ... 영생을"(모시서 1:39)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항상 그 목표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12 이러한 목표를 위해 그는 전세계적

인 신권 선교 사업을 대단히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대륙이나 지상의 일부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13

리 대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자는 목표를 진지하게 그리고 몽소 실천했다. 모든 비 킨클리 대관장의 야내, 마조리를 킨클리는 남편과 자신이 리 대관장 부부와 영 국에 머물면서 했던 경험을 기록한다. "그 날은 엉뚱이 바빴습 니다. 대회의 두 모임과 저녁 때 노벽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후 집 앞 죽 호텔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하

루 일과가 끝나 비로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 각은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중업원이 주문을 받기 위
해 연락을 들고 시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그녀를 찾아보시더니 이렇게
게 물었습니다. “이느 교회에 나가시나요?” 그
분에게는 아직 허락을 끝나지 않았던 것
입니다. 그 분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
d. 식사를 마치기 전에 그 분은 이 점에 여
 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를 만나
더 배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그 날 자신이 온
중일 가르쳤던 내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
다웠습니다.”

대관장으로서 리 대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와 감을 가지고 여러 대학, 곤 영국, 유럽, 멕시코, 중
동 등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는 캐나다와 독일 페인
에서 최초의 지역 대회를 개최했다. 예루살렘 방문하여 구세
주의 범죄를 따라 걷는 기쁨도 가졌다. 힐링리 대관장은 이렇
게 화상했다. “1972년에 우리는 성지로도 가셨습니다. 주님
의 묘소가 있던 동산에서 모임을 하며 그 신성한 장소를 하는
다양한 러브리 앰비션과 사이로 달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예언자로 지
지하였던 그 분께서 참소하게 갓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
로부터 온 어떤 것을 느꼈으며, 그 날 밤 지내, 진정한 감사와
衡水의 신앙을 지닌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실 줄 알이나 증거하는 예언자의 위상을 해/mol드 비리
대관장님이께서 보셨습니다.”

대관장이 된 지 53일 만에 리 대관장은 74세에 감기는
스런 심장 마비로 별세했다. 그 분의 시절은 그 분께서 오랫동
안 봉사하실 것을 기대했던 일일생님들에게 훨씬 충격이었다.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 화장 대리인 보이드 캐이 페셔 장로와 마
찰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이 대관장님을 하고 헌기했다. “여러
날 밤을 잠 못 이루며 기도하고 의아해 하고 또 숨고하면서 왜?
라고 물었음을 시진학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회
의 프로그램들에 익숙하고 정통했던 리 대관장님을, 우리가 가
장 필요로 할 때에, 왜 우리 간에 대가리가 하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
관하신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리 대관장은 생명 동안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귀중을 두었다. 주님의 예언자로서, 그는 성도들
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고찰한 아름다운 13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관제사진의 지시 사항에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라
고 호소했다.

모든 말씀성도 자연적이 새로운 개인 학습 지도서인 교회 대
관장들의 가르침: 해/mol드 비리에 나와 있는 복음을 원리와 교리
를 숙고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경건을 자신의 표준으로
사용했던, 하나님과 이 예언자는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나라만도 흔들게 찬란된 계획”을 향해 가르
쳤다.”

브레 임금랜드는 유타 캘리포니아 수타 토마스 스테이크 케이크 포크와의
회원이다.

주
2. 엘 브렌트 고우즈,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1985), 37, 46쪽 참조.
3.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v에서 인용.
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47쪽.
5. 대회 보고, 1943년 4월, 129쪽.
6. 고든 비 헉글리,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v에서 인용.
7. 고우즈, Harold B. Lee, 86쪽에서 인용.
8. 고우즈, Harold B. Lee, 106~114쪽 참조.
10.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65~166쪽.
11. 엘런 리 고우즈와의 장면, 슬라이드시티, 유타 주, 1998년

리 아호 나
12월 9일.
1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34쪽.
15. 고우테즈, Harold B. Lee, 122쪽에서 인용.
16. 고우테즈, Harold B. Lee, 117쪽에서 인용.
17. 헬렌 리 고우테즈와의 인터뷰.
18.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49쪽.
2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5쪽.
2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53쪽에서 인용.
25. 고우테즈, Harold B. Lee, 601쪽에서 인용.
27.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쪽.

2002년 2월호 45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대
화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와 대화하듯이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예나하면 그분은 하
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이며, 또 그분은 여러분과 대
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해야 할 일을 잘
해 주신 그분의 영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개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각에 들리
오는 그러한 것을을 찾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속삭임을 듣는 귀를 개방한다면, 여러분은 제시의 영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헤롤드 빌리 대관장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헤
롤드 빌리, 55쪽 참조)
꿈에 그리던

그는 완벽했다 — 단지 그의 나쁜 습관과 태도만 제외한다면. 그가 내게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라 벤거티
상사, 오사 오즈쿠스

스

터브는 크고 잘생긴 17살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두 살 어렸던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한 다고 믿었다. 그도 나를 좋아했으니 정말 빛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데이터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내가 아직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좋았다. 그러나 그는 내게 전화를 했으며, 나는 한 번에 두 번씩 스케줄 무도회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영원히 지속될 남작적인 사랑을 꿈꾸었다.

스터브는 활동적인 화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를 문제 없이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만 아버지의 내게 영감을 주셔서 스타브가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도록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 간의 관계가 잠 유지되기 해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마칠 동안 선교 사업을 나갈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서로에게 충실한 편지 쓰는 모습도 꿈꾸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남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뮤직한 그가 꽃다발을 들고 와 나를 깜짝 놀라게 해 줄 모습을 상상했다.
이상형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할 것이다. 그는 대학에 갔 준비를 마치고 뛰어나게 훈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결혼할 것이고 삶은 축복 그 자체이리라.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했다.

이런 로맨스를 꿈꾸며 죽기 시작한 후, 스티브는 한 무도화에 술 빼낼 뿐만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는 내 끝에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화 연락도 끊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객 올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음기도 많이 올고 기도도 많이 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스티브에게 양감을 주셔서 내게 기회를 다시 주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더 잘 잡을 거야, 다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상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야. 나는 간곡한 기도를 드리며 요청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영원히 기울이다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스티브는 내게 다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 스티브의 여자 친구가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결혼했으나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다. 스티브에게는 인연이 있지만, 나는 얼마나 살 때 듣던 기도들이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그 사람이 없이 내 안경을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그 이후로 나는 신교사로 복사하고 내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실제 시절에 꾸준히 그려 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백배는 더 멋진 한 귀한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했다. 내 남편은 스티브나 내가 데이트했던 몇몇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남편은 이에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나는, 당신이 혹은 아직 없다고 생각했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얼마간 살 때 나는 좋은 것을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아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그런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훌륭한 방법으로 내 꿈이 실현되어 해 주셨다.

라라 빅처는 유나 주 클레어트 그로브 가든 스테이크 가든 제1회지의 회원이다.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활용하기

공과 제언

■ "우리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 2층, 고등 비 학력 대학은 우리
생활에 있는 과거는, 흔히 이를 빠르게 해야 하며 멀어지는 세상의 악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여 이 과거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 "구약신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제3. 10층. 학력 비 교육장 자료는 구약신서
를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한 준비로서 나파바이에서 25~33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구약신서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가 준 데 가지 제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말 이상의 것", 28층. 성장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단어들에 주의
를 기울이는가? 여러분은 이 성스러운 의식에 따라오는 이롭다운 영에 주의를 기
울이는가? 성간의 목적을 찾아 생각하는가?
■ "새 친구 사귀기", 친구들 10층. 가족들에게 보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차 대회로 인한 축복

지난달 리아호나에는 연차 대회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연차 대회에서 어떤 유익한 것을
얻었습니까? 연차 대회로 인해 받은 축복, 관련된 의견, 이야기 및 경험 등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1@ldschurch.org.
성명, 주소, 연차 번호, 외도의 스테이크 명칭(또는 지부와
지방부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조셉 브릭키, 애렌 동산을 떠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렌 동산에서 그를 데려가시고 그의 근원이 된 곳들
곁에 하나님이 (영서기 3:20)